

〈코로나19와 모빌리티 연구단〉 네트워킹 세미나

격리 / 고립 / 고독

일시 | 10월 21일, 11월 11일, 11월 25일 (금) 오후 4-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관 S602-1 (대면 진행)

사회 |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문의 | 이상희 (sanghee.yi84@yonsei.ac.kr)

10월 21일
(16시)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

인구, 감염병, 지식의 모빌리티 : 한센병의 사례를 중심으로

11월 11일
(16시)

김영옥 (옥희살롱)

이것은 왜 삶이 아니란 말인가 : 요양 시설의 “삶” 과 돌봄노동

11월 25일
(16시)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 위기동안의 장애인의 격리와 고립

MoREPPaR(Mobility Regimes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ject

주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세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강 의 소 개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 / 2022년 10월 21일 (금) 오후 4시

제목 : '인구, 감염병, 지식의 모빌리티 : 한센병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구의 이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의료 지식의 확산을 동반했다. 제국주의 시기 급격한 인구 이동과 함께 각 지역의 풍토병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감염병 통제는 시급한 국제 보건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지식 역시 새롭게 조직된 국제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한센병의 사례를 통해 인구의 이동과 함께 전파된 질병,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세균설과 이에 근거한 격리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변화로 인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인구 이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다.

김영옥 (옥희살롱) / 2022년 11월 11일 (금) 오후 4시

**제목 : 이것은 왜 삶이 아니란 말인가' / "우리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요양시설의 "삶"과 돌봄노동'**

코로나 재난 시기 방역정책은 요양시설 노년입소자의 자발적 격리를 당연하고 자연스런 보호정책으로 간주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 노년입소자의 가능한/불가능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코로나 재난이 요청한/강제한 접촉의 단절은 요양시설이 삶의 장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환기한 것이다. 보편적 취약성과 그에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따라가보고자 한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22년 11월 25일 (금) 오후 4시

제목 : 코로나19 위기동안의 장애인의 격리와 고립'

팬데믹과 함께 '커뮤니티'도 '케어'도 모두 무너졌다. 코로나19 위기동안 국내 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재난불평등의 현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시설이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행해진 방역 목적의 분리조치(거리두기, 예방적 코호트격리, 외출 및 면회 통제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재난동안 구획화된 특정 시설과 일반화된 시설 사회에서 장애인이 격리 및 고립되는 과정을 짐작한다.